

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이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.  
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아기 흰뺨기러기처럼요.  
하지만 푸시킨의 시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속삭입니다.  
"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, 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"이라고요.



© 도휘경

이 활동지는 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 가는  
주인공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, 삶에 지친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.  
잠시 멈춰 서서 그림 속 풍경을 바라보며,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

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



---

---

---

---

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운명 앞에서 아기 흰뺨기러기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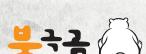


---

---

---

---



북극곰의 다양한 책들이를 만나 보세요.

아래의 장면들에서 엄마 늑대와 흰뺨기러기는  
먼 하늘을 바라보며 각각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?

장면 1.



엄마 늑대 :

장면 2.



흰뺨기러기 :



북극곰의 다양한 책들이를 만나 보세요.

『삶이 당신을』은 푸시킨의 시 「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」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 
본문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을 찾아 적어 보고, 그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.

삶이 당신을

푸시킨

삶이 당신을 속이더라도  
슬퍼 말아요 화내지 마요

속상한 날을 받아들여요  
행복한 날이 올 테니까요

당신 마음이 내일 향해도  
그저 지금은 너무 힘겨워

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  
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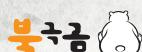
소중하고 또 소중하지요  
지난 시간도 모든 일들도

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

이 구절이 내 마음을 두드린 이유

“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, 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”이라는 시 구절처럼,  
요즘 삶이 나에게 건네는 말이 있나요?

가만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말을 아래 박스에 남겨 보세요.



북극곰의 다양한 책들이를 만나 보세요.